

단재 시론과 시의 값

곽 동 훈*

목 차

- | | |
|-------------|------------|
| 1. 들머리 | 3. 단재시의 특징 |
| 2. 단재시론의 특징 | (1) 한 시 |
| (1) 일반론의 내용 | (2) 국 시 |
| (2) 시사론의 내용 | (3) 장단점 |
| (3) 장단점 | 4. 마무리 |

1. 들머리

신채호(1880-1936)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의 문학관과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있어 왔으며 시 쪽에서의 연구는 드물다. 단재의 시론과 시에 대한 연구로는 이동순(1981)¹⁾, 이경선(1986)²⁾을 들 수 있다. 이동순은 단재의 시론인 <천회당시화>를 검토하여 단재시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경선은 <천회당시화>와 시사론(詩史論)인 <조선 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단재의 시 28수를 낱낱이 들어 해석하고 있다.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1) 단재 신채호의 <천회당시화>에 대하여 -그의 국시론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1집.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87-206쪽
- 2) 단재 신채호의 문학,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471-551쪽

이경선의 연구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단재의 시문학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동순의 연구는 단재 시문학의 값을 계속 논의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재의 시론과 시가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값매김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단재시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다음에 단재시가 그의 시론에 일치하는지 않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재시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단재의 글들은 《개정판 단재 신채호전집》³⁾ 상, 중, 하, 별집에 실려 있는 글들이다.

2. 단재시론의 특징

단재의 시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은 〈천회당시화〉⁴⁾와 〈조선 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⁵⁾이다. 앞글이 시 일반에 관계되는 강한 주장을 걸으며 드러내는 평론 성질을 지닌 글이라면 뒷글은 일어난 사실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펼치는 연구 성질을 지닌 글이다. 이 두 글들의 성질에 따라 단재의 시론을 공시성을 지니는 일반론과 통시성을 지니는 시사론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간추린 후에 이 둘을 합쳐 단재시론의 특징을 잡는다.

〈천회당시화〉가 단재의 글인가 윤상현(尹商鉉)의 글인가⁶⁾라는 문제는 글을 달리하여 밝힐 생각이지만 결론만 미리 말한다면 분명히 단재의 글이다.⁷⁾

3)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77. 12. 28.

앞으로 이 책을 본문에서는 《단재전집》, 각주에서는 《개정판》이라고 줄여 적는다.

4) 《개정판》 별집. 55-72쪽. 이 글은 제목 아래에 '시의 능력, 시도와 국가의 관계'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5) 《개정판》중. 159-174쪽

6) 이 물음은 다음 글에서 던져지고 있다.

김윤식(1986). 단재사상의 앞서감에 대하여 -근대문학과 관련하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형설출판사. 566쪽

7) 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다음 글에 제시되어 있다.

임형택(1986). 《담총》의 사상과 그 작가 -《대한매일신보》 소개 자료-, 위 책 635-691쪽. 특히 644-647쪽을 김윤식(1986)에서의 557-559쪽과 대비할 만하다. (고승 요의의 국문창조론)

(1) 일반론의 내용

〈친회당시화〉는 대한매일신보에 1909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17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이를 〈단재전집〉에서는 15토막으로 나누어 놓았다.

단재시화는 신문글이자 시화인만큼 토막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 토막마다 크고 작은 주장들이 들어 있으며 그 주장들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이를 간추리기 위해 먼저 각 토막에 들어 있는 주장을 차례대로 뽑아서 제시한다.⁸⁾

- 〈1〉 최영 장군의 시는 그 말이 씩씩하면서도 맑고 그 어조가 격렬하고 그 뜻이 웅혼하여 죽히 장군의 인격을 상상할러라 (제 1토막)
- 〈2〉 시는 국민언어의 정화라. 고로 강무한 국민은 그 시부터 강무하며, 문약한 국민은 그 시부터 문약하나니. (제 2토막)
- 〈3〉 또 그 나라의 문약을 풀이켜 강무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불가불 그 문약한 국시부터 개량할지라. (제 2토막)
- 〈4〉 내가 요즈음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시가를 살펴진대 태반이 음탕한 쪽으로 쏠려 풍속의 부패만 빛올터이니 (제 2토막)
- 〈5〉 특히 민속에 유익할 만한 시가를 수집하여 시계(詩界)의 나라얼(國粹)을 보존함이 가할지나 (제 2토막)
- 〈6〉 이는 다 한시요 국시가 아니라 (제 2토막)
- 〈7〉 오백년 동안 문학가 책상 위에 단지 한시만 쌓이고 국시에 이르러서는 울타리 곁에 내버린 지 수백년이니 슬프도다. 이 또한 나라얼이 스러지고 떨어지는 한 원인인저. (제 2토막)
- 〈8〉 내가 본 바 국시 중에 그 전하는 바가 가장 오래된 것을 들면 고승 요의가 국문을 시창하고 불교를 찬미한 진언이 이것이라 할지나, 그러나 이는 범시를 음역한 것이라 국시로 부름이 불가하고, 그 다음으로는 최영 정포은의 '단심가'가 될지라. (제 3토막)
- 〈9〉 나는 일찌기 말하되 우리나라의 한시는 남이의 시 한 수와 최영의 시 한 구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일체 불지르고자 하노니. (제 4토막)
- 〈10〉 시가는 사람의 감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하나니 마땅히 나라글자를 많이 쓰고 나라말로 구를 이루도록 하여 여자와 어린이도 한번 읽어 다 밝힐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국민 지식보급에 효력이 있을지어늘 (제 6토막)
- 〈11〉 근일에 각 학교 노래를 들은즉 한자를 잠용함이 아주 많아서 노래하는 학동이 그 맛을 느껴 알지 못하며, 듣는 행인이 그 말뜻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오. 이 또한 교육계의 결점이라 할지르다. (제 6토막)
- 〈12〉 영국시는 영국시의 음절이 스스로 있으며, 러시아시는 러시아시의 음절이 스스로 있으며, 기타 각 나라시가 다 그러하나니 만일 갑 나라의

8) 단재의 글 가운데서 알기 힘든 표현은 지금 말로 고쳐 적는다.

4 韓國文學論叢 第13輯

- 시로 을 나라의 음절을 본받으면 그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이 어찌 우습지 않겠는가. (제 7토막)
- 〈13〉 우리말(東國語), 우리글자(東國文), 우리소리(東國音)로 만든 것이 우리시(東國詩)라. (제 9토막)
- 〈14〉 무릇 시란 것은 기뻐서 외치거나, 분해서 소리지르거나, 초라하고 구슬퍼서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으로 앓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는 등의 감정상태로 결성한 글말이니, 시를 없애고자 하면 이는 국민의 목구멍을 틀어 막으며 뇌를 깨뜨림이니. (제 9토막)
- 〈15〉 시가 번성하면 나라도 번성하며, 시가 쇠잔하면 나라도 쇠잔하며, 시가 있으면 나라도 있으며, 시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제 9토막)
- 〈16〉 그 시가 무열(武烈)하면 전국이 무열할지며, 그 시가 음탕하면 전국이 음탕할지며, 그 시가 웅건하면 전국이 웅건할지며, 기타 여러 감정이 시가의 지배력을 받는 바인데 (제 10토막)
- 〈17〉 국시로 말하면 심심풀이 시뿐이며 험령이 시뿐이며, 도망쟁이 시뿐이요, 또 한시도 대개가 이들 말 이들 뜻뿐이 아닌가. 외면으로 우리나라의 시가 아주 번성하다 할지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시가 망한지 벌써 오래라. 시가 망하였거나 국민의 사상이 어떻게 고상하며 국민의 정신이 어떻게 결합하리오. (제 11토막)
- 〈18〉 고대에는 선비와 어진이와 우두머리가 모두 국시와 향가를 즐겨 본보기가 되면서도 활발한 저작이 많으며, 또 아침 저녁 벗들이 모였을 때 자주 시를 읊거나 노래 불렀던 흥을 남겨, 그 풍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적 100년간은 이 길이 단지 놀팽이와 논다니에 돌아갈 뿐이요, 만일 상등사회 공부하는 선비이면 국시 한 구를 짓지 못하며, 향가 한 절을 풀어 맛보지 못하므로 시가는 음탕하고 사치로운 곳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유쾌한 길이 끊어지니, 나라와 백성이 쪼그라들고 빼망하게 된 말미가 비록 여러 가닥이나 이도 또한 한 실마리가 될진저. (제 13토막)
- 〈19〉 대저 번사의 혀와 협사의 검과 정객의 수완과 시인의 붓끝이 그 효용의 느리고 빠름은 다르나 세계를 빛어내는 능력은 한가지라. 시의 공이 있는 쓰임을 이에 알진저 (제 15토막).

이 주장들을 살펴 보면 시, 시가, 국시, 향가에 대한 생각들이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추리기 위하여 먼저 시와 시가에 대한 생각을 한데 묶고 국시와 향가(곧 국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데 묶어서 시와 국시에 대한 생각으로 크게 덩이를 짓는다. 다음으로 시에 대한 생각은 뜻매김, 효용, 개량으로 나누고 국시에 대한 생각은 뜻매김, 최초의 국시, 비판, 개량으로 나눈다. 단재시화의 시에 대한 생각이 곧 국시에 대한 생각이고 국시에 대한 생각이 곧 시에 대한 생각이라서 이 나눔이 억지스럽기는 하나 생각의 혼란을 덜

수 있기에 이따라 다음과 같이 간추린다.

‘시’

1. 시의 뜻매김 ; 시는 국민언어의 정확로 <2> 각 나라말글로 표현되어야 하며 <12> 사람의 들끓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글말이다. <10> <14> 그리고 시와 시인의 사람됨은 일치한다.<1>
2. 시의 효용 ; 시가는 사람의 여러 감정을 지배하므로 <16> 인간세계를 벗어낸다. <19> 따라서 바람직한 감정을 담은 시가 있으면 나라도 있고, 시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15>
3. 시의 개량 ; 바람직하지 못한 시는 고쳐야 하는바 <3> 마땅히 나라글자를 많이 쓰고 나라말로 시를 이루도록 하여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국시’

4. 국시의 뜻매김 ; 거의 쓸모없는 한시는 국시가 아니다. <9> <6> 우리시는 나라열을 보존하도록 <5> 우리말 가락을 살리면서 <12> 우리나라 사람 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한번 읽어 그 감정을 밝힐 수 있는 <10> 우리말, 우리글자, 우리소리로 만든 것이다. <13>
5. 최초의 국시 ; 최영과 정포은의 ‘단심가’가 가장 오래된 국시다. <8>
6. 국시비판 ; 오랫동안 한시에 짓눌려 온 국시도 <7> 한시처럼 심심풀이시, 험렁이시, 음란시, 도망쟁이시들이 대부분이며 <17> 이따적 100여년간은 더욱 심해져 우리시가는 음탕하고 사치로운 곳에 떨어졌다 <18> 요즈음 시가는 태반이 음탕하여 풍속의 부패만 빚고 <4> 계다가 학교의 시가 교육도 바람직하지 못하니 <11> 우리시와 나라가 패망할 조짐이 보인다. <18>
7. 국시개량 ;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문약한 국시부터 강무해지도록 개량해야 한다. <3> 강무한 시는 그 말이 씩씩하면서도 맑고 그 어조가 격렬하고 그 뜻이 웅혼하다. <1> 개량방안으로는 민속에 유익한 시가를 수집해야 하고 <5> 시가교육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 <10> <11>

(2) 시이론의 내용

<조선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은 1924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논문이다. 이 논문은 국문자의 변천, 시가의 변천, 결론, 부언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이 펼쳐진 차례대로 이 글에서 힘주어 말한 대목을 뽑아서 제시한다.⁹⁾

9) 주 8)과 같음.

‘국문자의 변천’

- 〈1〉 우리가 쓰는 문자의 변천을 3시기에 나눌 수 있으니, 제 1기의 이두문, 제 2기의 구결문, 제 3시기의 언문이다.
- 〈2〉 우리문자가 이같이 3기의 변천이 있으나, 그러나 국문이 난 뒤에 구결이 폐지되고, 구결이 난 뒤에 이두문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불과 30년전까지 이두와 구결이 병존하여, 논어나 맹자나 기타 한문책에 토를 달려면 구결을 쓰고, 관부에 올리는 정소(呈訴)문자에는 또한 이두를 섞던 바라.
- 〈3〉 오늘날 이두와 구결의 작자가 누구임을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이두문은 한자의 소리 혹은 뜻을 빌려서 나라글자로 만들어 쓴 것이니, 이것이 신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삼한과 삼국이 다 부려쓴 것이다.
- 〈4〉 이두문은 후세에 서리들이 씌므로 이름불여진 것이니, 신라에서는 향서라 하고, 백제에서는 흑가명(假名)이라 불렀던 듯하다.
- 〈5〉 실총은 신라 문무 양대왕의 때인데, 이때가 발해태조 대조영의 동시대이니, 신라가 이때에 이두가 변하여 구결이 되었은즉 발해도 또한 동일한 계단에 있을지라. 글안태조가 발해를 멸하고 그 관제를 본뜬 오경관제(五京官制)가 거의 발해의 것을 본으로 하였은즉, 그 소위 글안자도 또한 발해의 구결을 본뜬 것이 의심할 바 없도다.
- 〈6〉 우리의 구결은 오직 근세에 한문책에 달아 온 토만 남고 독립으로 쓰던 글은 후세에 전한 것이 없으나, 삼국 동북국시대에 이것으로 문화의 이기를 삼아, 동으로 일본을 인도하며 서로는 글안에 전하여 여진에까지 상속됨을 상상할지니라

‘시가의 변천’

- 〈7〉 〈삼국유사〉에 적은 시가가 겨우 십여수뿐이요, 십여수도 수백년래 이두문의 해독자가 없어 그 시가의 의의를 모르는 동시에, 그 내용의 가치여하를 거의 알길이 끊어졌으니, 어찌 천만유감이 아니뇨. 저자가 〈삼국유사〉와 〈악학궤범〉에 참고하여 해석한 이두문으로 적은 처용가 한 수를 소개하리라.
- 〈8〉 ‘동경 밝은 다래 밤들이 노니다가 드러서 자리에 보니 가라이 너이러라. 들흔 내해었고 들흔 누치해었고. 본되내해언만 빼앗긴것을 잊지할고’
- 〈9〉 여하간 본가 한 수의 뜻은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또한 기이한 행운이라 할지로다. 만일 더 연구할 남은 틈이 있으면 다른 이두로 적은 시가도 그 뜻을 안출하여 고조선사상의 한 줄을 소개할까 하노라.
- 〈10〉 〈삼국유사〉는 불교의 원류를 적은 글월인 고로 겨우 불교에 관계있는 시가만 적은 것인즉, 그 십여수는 구우일모(九牛一毛)일지며, 또한 신라의 것만 적고 고구려와 발해의 것은 한 수도 없고, 백제의 것은 서동대왕의 단가 한 수가 전하였으나 이는 신라 선화공주의 관제로 쓴 것이요, 백제의 것으로 쓴 것이 아니로다. 그러나 〈고려사〉 악지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가는 ‘내원성’ ‘연양’ ‘명주’ 세 수가 있고, 백제는

- ‘선운산’ ‘무등산’ ‘지이산’ 세 수가 있으나, 그 노랫말을 우리말이라 하여 게재하지 안하였으니 또한 가석하거니와.
- <11> 백제 성충과 고구려 을파소의 시 각 한 수씩이 <대동풍아>에 게재된 바 이는 근세의 언문으로 적히고 그 책자의 내력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시인 확증이 부족하나 또한 버리기도 아까우므로 줄져 조선사에 채입하리라.
- <12> 이는 아마 발해의 국서가 이두 혹은 구결의 발해글자로 되었으므로 당나라 사람이 이를 해독하지 못함이고, 이태백의 답서도 발해글자로 한 것 인고로, 그 글월이 이태백집에 게재되지 못함이라
- <13> 고려 470여년간에 문자와 시가의 발달된 흔적은 문헌의 결핍으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과정 정서의 시가가 다행히 전한 바
- <14>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이나 <고려사> 저자 정인지가 다 이두문으로 적은 문자를 현대화하여, 두 책의 악지(樂志)에 한시만 기재하고 이두로 쓴 국가와 국시는 덜어 버렸으니, 이는 조선 기록상에 천고의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도다.
- <15> 고려와 이조의 교체시대의 저자인 목은, 야은, 포은 모자, 이조 태종 등의 시조 몇 마디가 <대동풍아록>에 보인 바, 그 중에 포은의 ‘죽어 죽어 일백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녀시야 있던 없던 님 향한 일편 단심 가실 줄 잇스랴’의 일 수는 잘못이 적당하고, 태종의 ‘이러하면 엇더하며 저러하면 엇더하리 천왕당 암뒤들이 문어진들 엇더하며, 만수산 두평 측이 영겨진들 엇더하리 우리도 이와같이 태평장취’는 이상한 기운이 흘러 넘쳐 비록 두 수의 단시거나, 전자는 단심이 철석같은 고려 충신 일파의 심리를 대표하며, 후자는 시세를 좇아서 부귀를 얻으려는 이조 창업제신 일파의 심리를 대표한 것이니라.

‘결 론’

- <16> 대개 이두문은 삼국·동북국·고려 등 역대의 국문이다.
- <17> 세종대왕의 정음자모는 이두에 비하면, 그 음과 형이 완미할 뿐더러 그 학습이 더욱 편리하여 우리 문학이 발흥할 이기를 주었으나, 다만 한문학의 정복을 받아 각종 글월을 모두 한문으로 적고 한문만 문자로 알아 국문학 발달의 앞길을 막았으며, 원효·정철·윤선도 제공이 간혹 시조의 명작이 있으나, 그러나 그 재주와 힘을 모두 한시의 저작에 팔아먹고, 시조는 남는 일로 만들었으므로 모두 작가라 부르기 부족하며,
- <18> 최근에 와서 일반 조선 문법의 학자들이 우리 글의 발달을 절규하나, 그러나 각종 문학의 진보는 매양 다수한 작가가 나서, 전 사회를 고무할 만한 시나 소설이나 극본이나 기타 각종 문예작품이 많아, 이로써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어 굶주린 자의 양식이 되며 병자의 약이 되어, 자가문학의 독립국을 건설할 만한 일이니, 근일에 작가로 칠 작가가 몇이나, 아오.

‘부 언’

- 〈19〉 처음 뜻은 ‘세종대왕이 지은 언문의 이두문에 대한 관계’와 ‘이조 오백년래 시조 잡가 등의 변천하여 온 원류’를 상론하려 하였더니,
- 〈20〉 그러나 이두문으로 지은 처용본가의 의의를 발견하며, 사책에 누락된 정과정의 국시를 생각해 낸은 저자의 이 편부터 비롯한다고 할지니, 혹 이후 조선문학사 편찬자의 채택이 될까 하노라.

이 글은 논문이라 제시한 대목들이 서로 연결되어 저절로 각 부분을 이루므로 간추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3) 장단점

지금까지 살펴온 단재시화와 단재시사론을 합쳐서 생각하면 단재의 시론을 보다 또렷하게 알 수 있다. 단재시화가 그의 나이 서른살에, 시사론이 마흔다섯살에 발표되어 비록 두 글 사이에 15년의 세월 흐름이 있지만 두 글 속의 내용은 같이 가고 있다. 단재시화에서 내세운 주장의 근거를 단재시사론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시의 뜻매김에 쓰여진 ‘국문’의 뜻넓이를 ‘국문자의 변천’으로, ‘국시’의 뜻넓이를 ‘시가의 변천’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국시 비판과 국시 개량에 대한 뜻은 ‘결론’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두 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최초의 국시에 관계되는 생각이다. 이는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고승 요의의 국문창조론과 ‘단심가’론이다. 단재는 이십대 후반에 국문을 요의가 창조했다고 믿었는데¹⁰⁾ 그의 시사론 ‘결론’에서는 세종대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임형택(1986)¹¹⁾에서 밝힌 ‘요의는 서역

10) 이는 단재의 다음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한문의 경중〉(1908. 3. 17-19. 대한매일신보). 《개전집》 별집. 74쪽
 〈국문의 기원〉(1909. 12. 29. 대한매일신보) 위 책. 78쪽
 〈국문연구회 위원 제씨에게 권고함〉(1908. 11. 14. 대한매일신보) 위 책. 79쪽
 〈국문의 기원〉에서 언급한 부분만 인용한다.

‘요즘 사람이 다 국문을 본조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아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지라. 내가 일찍 서사에 들렀더니 〈진언집〉이란 한 책자가 있는데 이를 살핀즉 불가에서 전교하기 위하여 국자와 한자를 섞어 써서 펴낸 것이러라. 그중에 국문의 기원을 이야기한 한 조각이 있는데, 만든 사람은 고승 요의라 하였으니, 요의가 어느때 사람인지 알지 못하나 세종 이전 사람 됨은 의심할 바 없더라.’

11) 주 7)과 같음

승으로 중국 음운학에 관계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15년 세월 흐름 사이에 단재가 알게 되었다고 짐작하게 한다. 단재시화를 쓸 때 가졌던 최초의 국시가 '단심가'라는 생각도 우리 시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넓고 깊어진 시사론을 쓸 무렵에는 바뀌어 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시가의 변천' <15>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직한 국시의 본보기가 '단심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단재시론의 내용은 (1)절에서 간추린 단재시화의 내용에서 '5. 최초의 국시'를 뺀 나머지가 된다. 이를 크게 시의 뜻매김, 시의 효용, 시의 개량으로 잡는다. 이러한 단재시론의 특징은 소박함, 참됨, 넉넉함으로 잡을 수 있다. 시의 뜻매김과 시의 효용과 시의 개량은 문학의 한 갈래인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에 적용될 수 있는 생각이다. 곧 문학의 뜻매김, 문학의 효용, 문학의 개량으로 놓아도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는 주장들이었다. 이 점이 단재시론의 소박함이 된다. 그리고 단재시론을 두고 다른 겨레 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상정하여도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이 점이 단재시론의 참됨이 된다. 마지막으로 단재의 시론은 단재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 뒤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넓이를 지니고 있다. 곧 어느 시대의 시문학에도 갖다대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단재시론의 넉넉함이 된다. 단재시론의 이 특징들은 바로 단재시론의 장점이 된다.

단재시론의 단점을 살피기에 앞서 이동순(1981)에서 제시한 단재시화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동순은 자기 논문의 '국시의 개념 규정'과 '결언' 부분에서 단재시화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결언'에서 제시한 것만 인용한다.

첫째 단재시화는 시형태에 대한 관심보다 표현내용의 중시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주제의식의 확일화와 시관의 소폭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시와 국가간의 양자 불가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시의 공리적 인 기능만을 중시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이것은 시의 보편화, 대중화작업과 그 발전에 도리어 위배되는 것이다.

셋째 시가에서의 한자잡용비판은 한국한문학의 전면 부정에까지 이르러, 국문학의 범주를 혼미하게 하였고, 이것은 단재가 민족문화를 인식하는 태도의 경직성을 드러낸 결과가 되었다.¹²⁾

12) 주 1)의 책. 206쪽

단재시화는 비록 토막글이라서 중복이 심하기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주제를 논하고 있다. 바로 부제에서 밝히고 있는 ‘시의 능력, 시도(詩道)와 국가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단재시화의 알맹이는 시와 국시의 효용과 개량이 되고 시와 국시의 뜻매김은 그를 드러내기 위해 돕는 몫을 하고 있다. 인용문의 둘째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빚어진 그릇된 비판으로 보인다. 세번째 비판은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다. 한시와 국시를 가름하는 것은 국문학과 한국한문학의 범주를 아울러 명쾌하게 한다. 마치 쌀과 보리를 섞어 밥을 지어 놓고 이것이 쌀밥인가 보리밥인가 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서로 길이 다른 국문학과 한국한문학을 뒤섞어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국문학의 범주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비판의 첫째만 받아 들인다.

단재시론의 단점은 둘을 들 수가 있다. 첫째, 시의 뜻매김과 개량사이에 틈이 있다. 시가 각 나라말글로 표현되어야 하고 우리시가 우리 글자로 표현되어야 한다면 시와 국시 개량에서도 ‘마땅히 나라글자를 쓰고’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재시화 <10>에서는 ‘마땅히 나라글자를 많이 쓰고(國字多用)’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 발휘는 단재가 살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혼란스런 글쓰기를¹³⁾ 고려하면 심분 수궁할 수도 있으나 뒷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흠이 되는 것이다. 둘째, 단재시화에서 ‘우리나라가 강무해지려면 문약한 국시부터 강무해져야 한다.’는 국시개량론의 폭이 너무 좁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오로지 강무한 국시만 있기 보다는 맑고 바른 뜻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국시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맑고 바른 행동을 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맑고 바른 가치관을 지니게 되면 더럽고 그른 일에 싸워나가기 때문에 저절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나라를 잃게 된 시점에서 다급한 심정으로 쓴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시개량론의 폭이 좁은 것은 흠이 된다.

13) 당시의 혼란스런 글쓰기에 대해서는 단재의 다음 글이 잘 보여 주고 있다. 문범을 의통일, 《개전집》 하. 95-96쪽

3. 단재시의 특징

단재의 시를 다루고 있는 글로는 이경선(1986), 송재소(1986),¹⁴⁾ 김병민(1988)¹⁵⁾이 있다. 이 세 글들에서 단재시를 나누는 잣대나 가름이 서로 다르다. 송재소는 국시와 한시를 섞어서 다루고 있으며, 이경선은 국시·시조·한시로 가르고, 김병민은 자유시·한시·시조로 갈라서 살피고 있다. 송재소의 글은 내용 중심의 소개글이라 말갈을 잣대로 한 가름이 아예 없고, 이경선은 단재의 국시개념을 잘못 챙긴 흠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병민의 가름을 따르되 국시와 한시로 먼저 가르고 국시를 시조와 자유시로 다시 나눈다. 그리고 가벼운 값을 지닌 한시는 앞에 두고 다음에 국시를 놓아서 단재시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1) 한 시

《단재전집》에 실려 있는 한시는 모두 17수이다.¹⁶⁾ 이들은 거의가 그의 망명생활 중에 만주와 중국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다.¹⁷⁾ 이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보면 넷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어릴적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다. ‘고원(故園)’, ‘가형기일(家兄忌日)’, ‘무제(無題)’가 여기에 든다. 보기로 한 수를 든다.

無題

睡隨朦朧不背開
清晨強起拜如來
子胥身世餘行乞
天亮風流廢擧盃

무제

몽롱히 든 잠이라 눈 뜨기가 싫었전마는
새벽에 굳이 일어 부처님께 예배했네.
이 몸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거니,
풍류야 알전마는 술잔을 멈추었네.

-
- 14) 단재의 시에 대하여, 신체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단재 신체호 선생 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573-583쪽.
15) 천만년 긴 새벽이 되었으면, 신체호 문학연구. 료녕민족출판사. 168-212쪽
16) 《개전집》 하. 391-401쪽 (12수)
《개전집》 별집. 347-353쪽 (5수)
17) ‘구력세제 봉우슬희(舊曆歲除 逢友述懷)’ (1910. 2. 13. 대한매일신보. 사조.)는 국내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白壁三朝終不遇	옥들을 보고서도 알아 주는 뉘도 없고,
黃河一去幾時回	강물이 흘러가면 어느 제나 돌아오리.
故園香草堪爲餅	지금도 고향에선 쪽으로 떡 빚으리,
回憶斑衣膝下部	색동옷 입고 놀던 때가 다시금 그리워라. ¹⁸⁾

창작동기를 밝힌 이 시의 앞글에서 이 작품이 1924년 단오날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마흔 다섯 나이의 단재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관음사에서 중생활을 한 지 두 달이 지난 때이다.¹⁹⁾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작품을 읽으면 단재의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었는가를 같이 느낄 수가 있다. 둘째, 망한 고국을 떠난 외로운 처지와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한탄을 담은 시다. ‘북경우음(北京偶吟)’, ‘백두산도중(白頭山途中)’, ‘추야술회(秋夜述懷)’가 여기에 든다.

秋夜述懷(壬戌秋作)	가을밤에 회포를 적음
孤燈耿耿伴人愁	외로운 등불 가물가물 남의 시름 같이 하며
燒盡丹心不自由	일편단심 다 태울제 내 맘대로 못할러라
未得天戈回赫日	창 들고 달려 나가 나라 운명 못둘리고
羞將秃筆畫青丘	무질어진 붓을 들고 청구 역사 그적이네
殊方十載霜侵鬢	이역방랑 십년이라 수염에 서리 치고
病枕三更月入樓	병석에 누운 깊은밤에 달만 누각에 비쳐드네
莫說江東鱸膾美	고국의 농어 회 맛 하 좋다 이르지 마라
如今無地繫漁舟	오늘은 땅이 없거늘 어디다 배를 맏고.

1922년 가을, 마흔 세살의 단재가 이국 땅에서 아픈 몸으로 조선 역사를 적으면서 나라잃어 돌아갈 곳 없는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셋째, 어그러진 삶을 낳은 문약한 유교에 대한 비판과 미움을 담은 시다. ‘술회 1·2(述懷 一·二)’, ‘서분(書憤)’, ‘독사(讀史)’, ‘영오(詠誤)’가 여기에 든다. 보기로 한 수를 든다.

18) 《개전집》 별집. 352-353쪽 이은상의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
 19) 참조) 김영호(1971). 단재의 생애와 활동, 나라사랑 제3집. 외솔회. 정음사간. 81-82쪽.
 이경선(1986). 주2)의 책. 477쪽과 514쪽.

述懷 二

鷄狗於人本無罪
只爲口腹日殺之
惟有強權而已矣
空言仁義欲何爲
席門談道眞迂士
手劔斬人是快兒
云云聖哲果何者
高標二字護相欺

회포를 적음 2.

개 닭이 사람에게 무슨 죄 있나
다만 배 채우려 죽이는거지
오직 하나 강한 권세 있을 뿐인데
부질없이 인의 외쳐 무엇하리요
거적자리 도 이야기 웅졸한 선비
칼 들이 사람 뱀, 쾌남아라네
聖이라 함이라 그 어떤 자노
두 글자 내세우고 서로 속이네²⁰⁾

사람답게 살도록 이끄는 유학은 약육강식이라는 짐승의 욕망을 지닌 국가권력 곧 제국주의 앞에서는 부질없다. 이를 간파한 단재가 국가간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문약한 유교를 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벗과 동포를 기리면서 국권회복에 대한 다짐을 담은 시다. ‘계해10월 초2일(癸亥十月初二日)’, ‘구려세제봉우술회’, ‘중별 기당안태국(贈別, 期堂安泰國)’, ‘몽김연성(夢金演性)’, ‘증 기생연옥(贈妓生蓮玉)’, ‘백두산도중우(又)’가 여기에 든다. 보기로 한 수를 든다.

癸亥十月初二日

天空海闊儘悠悠
放膽行時便自由
忘却死生無復病
淡於名利更何求
江湖滿地堪依棹
雪月邀人共上樓
莫笑撚髭吟獨苦
千秋應有百牙酬

계해 시월 초 이튿날

하늘과 바다가 넓고 넓구나.
마음 놓고 다녀도 거칠 것 없네.
생사를 잊었는데 병이 무엇가.
명리를 떠났거늘 무얼 구하라.
곳곳이 강과 호수 배 탈 수 있고,
눈과 달이 사람 불러 같이 거니네.
애답게 시 읊는 것 웃지 말아라.
천추에 뜻 아는 이 응당 있으리.

마흔 넷의 단재가 망명생활 동안 온갖 고초를 겪고서도 조선 역사를 쓰고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새삼 다지고 있다. 단재의 호방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20) 이 시에 대해서는 송재소(주14)의 교정과 번역을 따른다. 다만 여섯째줄의 ‘사람 지름’을 ‘사람 뱀’으로 고쳤다.

(2) 국 시

《단재전집》에 실려 있는 국시는 시조가 5수, 자유시가 6수로 모두 11수이다.²¹⁾ 단재의 시조는 시와 노래를 아울러 생각한 단재의 시론에 가장 잘 들어맞는 시형식이다. 단재는 자유시보다 시조에서 자신의 시 창작 능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려영(高麗營)

고려영 지나가니 눈물이 가리워라
 나는 서생(書生)이라 개소문(蓋蘇文)을 그리랴만
 가을 풀 우거진 곳에 옛 자취 설워 하노라.²²⁾

중국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진영의 유적을 돌아보고 가슴아파하는 단재를 떠올릴 수 있다. 단재가 연개소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연개소문이 ‘조선역사상 미증유의 침략주의를 행하던 인물’²³⁾이라서가 아니다. 이 시조의 연개소문은 중국과 당당히 맞서 천하를 겨루던 당시 고구려 사람 곧 우리 겨레의 넉넉하고도 굳센 기상을 상징하고 있다. 종장에서 단재가 서러워 하는 것은 천년 전의 일이 아니라 강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당시를 서러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치의 원인이 되는 우리 겨레의 쪼그라 든 기상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조는 고려가 망하고 난 뒤 여러 고려 유신들이 읊은 회고가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금강산

금강산 좋다 마라 단풍만 피었더라
 단풍 잎새 잎새 추색(秋色)만 자랑터라

21) 《개전집》 하. 402-404 쪽 (3수)

《개전집》 별집. 331-346 쪽 (8수)

22) 《개전집》 하. 404쪽.

위 책에서는 ‘61일 계단의 회고’를 뱀 네수의 시조를 2음보(구)를 한 줄로 처리하여 모두 여섯 줄(2/2/2/2/2/2)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4음보를 한 줄로 처리하여 각 수를 석 줄로 적는다.

23) 연개소문의 사년(死年), 《개전집》중. 149쪽 고려영과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단재의 이 논문을 참고했다.

차라리 몽고 대 사막에 대풍을 반기리라.

이 시조는 만주와 중국 땅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광복 지사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워졌던 것으로 짐작된다.²⁴⁾ 우리 겨레 누구나가 자랑하는 가을 금강산을 거부하는 데에 이 시조의 참 맛이 있다. 빼어난 금강산의 경치보다 훨씬 소중한 너럭하고도 굳센 겨레의 기상을 꿈꾸는 단재에게 금강산의 단풍은 기울어가는 겨레의 힘으로 비추어져 안타깝다. 금강산을 기리는 웅졸한 기상을 뿌리치고 큰 사막의 큰 바람에 맞서 쇠처럼 단단한 금강의 기백을 내뿜는 단재의 기상을 맛볼 수 있다.

현량사 불상을 보고

집 주고 돈도 주니 통부처의 대가리에
이백년 청실(淸室) 은혜 산같이 쌓였어라.
은혜를 못 갚을망정 눈물조차 없단 말가.

61일 계단(戒壇)의 회고

한 뽕쭙 되는 자리에 비비고 드러누우니
공기야 좋은 말든 이나 아니 물었으면
아무리 이가 물지라도 혀를 수나 있었으면

서너 겹 옷을 입고 대웅전에 올라서니
옷 속의 뭇이들은 조찬회궐 하는고나
여래가 어질다더니 악형을 하십니다.

상오 두 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오 열 시까지 절하기로 판을 짠다.
인제야 뻗뻗한 허리 버릇을 떼는고나

삼월 십일에 이 문에 들어올 때
매화 한 송이도 필 염두를 안 냈더니
절하고 나오는 동안에 온 나무가 텅 비었고나

여래의 사십구년 손끝 허끝 다 놀리어
언은 바 무엇이나? 결식단장(乞食團長) 실직(實職)이다.
결식에 배가 부르매 설법을 하였고나

허리를 안 굽히고 팽백령을 내어 놓며

24) 심훈(1936). 단재와 우당, 《개전집》 별집. 411쪽.

표주박 손에 들고 빌어먹던 도연명아
네 참말 고사이다.
참 질 한 번 받아라.²⁵⁾

단재는 민족 종교인 대종교 말고는 유·불·기독교를 모두 싫어했다. 현실보다 이념을, 이승보다 저승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이승살이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앞의 시조는 중국이 강도 일본에게 망해가는 데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중국불교계를 비꼬고 있다. 뒷 시조에서는 석가여래를 거지왕초로 비꼬고 있으나 그러한 거지왕초에게 허리를 굽히고 절해야만 하는 자신의 가슴 아픔을 도연명을 내세워 놓치고 있다. 그러나 빌어먹는 절밥을 다시 빌어먹더라도 살아남아 조선역사를 써서 겨레의 얼을 굳건히 하려는 포부가 있었기에 61일 동안 부처에게 수없이 헛절을 한 것을 우스개로 돌리려는 마흔 다섯살 단재의 자부심과 기백이 마음을 울린다.

나비를 보고

춘산(春山)에 노는 나비 그 등에 올라 앉아
훨훨 날아 가면 어디를 못 가랴만
동풍이 너무 약하니 빈 꿈에 비치리라.

단재의 시 28수 가운데서 가장 크고 넓은 단재의 뜻과 느낌을 담고 있는 시조이다. 꿈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 꿈은 현실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바닥에 깔고 있다. 낱낱의 현재가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또렷이 알고 있는 단재가 꿈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잘못에 당당히 맞서 그 잘못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센 기상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다. 이 시조는 앞의 너덕하고도 굳센 기상을 펼치거나 그리워 한 시조들과 현실보다 꿈을 중요시하는 불교를 꼬집은 시조들을 다 싸안을 수 있는 작품이다. ‘동풍이 너무 약하니’는 겨레의 웅건한 기상이 아직도 회

25) 《개전집》별집. 343-344쪽에는 각 도막마다 번호가 붙어 있으며 다섯 번째 도막은 줄 처리가 다르다.

복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다. 현실 속에서 꿈을 이루려는 단재의 마음가짐을 같이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단재의 자유시는 그의 시조에 견주어 시다운 맛이 떨어진다. '1월 28일' '새벽의 별', '철추가', '매암의 노래'는 시가 되지 못하고 '너의 것', '한나라 생각'이 시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⁶⁾ 그러므로 두 수의 시만 보기로 든다.

한나라 생각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써 베면
고우나 고운 밧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
한 주먹 덩씩 그 피를 쥐어
한 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맛이 하리

(상해에서)²⁷⁾

나와 나라가 이미 한덩이이며 바깥에서 이를 가르더라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단재의 매서운 다짐을 보여주는 시다. 이 시는 전통가락인 2, 3, 4음보를 섞어서 쓰고 있는 안고른 가락의 자유시다. 나라를 잃은 후 조국을 떠나서 격앙된 감정으로 읊었기에 시조와 가사 그리고 민요같은 이미 있었던 시형식을 자연스레 깨뜨리고 있다. '여기서 참으로 자유시 탄생의 진통을 본다.'²⁸⁾ 최남선에서 비롯한 소위 신체시는 서양의 영향을 받은

26) 나의 판단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글로서는 이경선(1986), 김병민(1986)을 들 수 있다. 이경선은 단재의 모든 시를 단재의 사상과 고리지어 해석만 하고 값매김은 삼기하고 있다. 김병민은 맑스의 《예술론》에 바탕을 두고 단재의 모든 자유시에 최상급의 찬사를 바치나 시조는 자유시와 한시에 견주어 그 사상예술적 성과가 크지 못하다고 값매김을 하고 있다.(주 15)의 글) 김병민이 힘주어 풀이하고 있는 단재 자유시의 장점들(운율구성과 수사법)이 나에게서는 오히려 단점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필두로 하는 소위 신체시보다 낫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27) 단재 년보에서 상해시절을 참조하면 1913년(34살) 또는 1919년(40살)의 작품이 된다. 여하튼 1910년대의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28) 임형택(1984). '동국시계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273-274쪽.

당시 일본 시풍을 모방한 것이었으나 단재의 이 작품은 우리 겨레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시를 쓰게 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표현에서 잘못된 것은 일곱 째 줄의 ‘한 나라 땅에’이다. 나라를 ‘너’로 의인화한 것을 그대로 이으려면 ‘너의 몸 위에’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것

너의 눈은 해가 되어
여기저기 비치우고지고
님의 나라 밝아지게

너의 피는 꽃이 되어
여기저기 피고지고
님 나라 고와지게

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저기 불고지고
님 나라 깨끗하게

너의 말은 불이 되어
여기저기 타고지고
님 나라 더워지게

살이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어라
님 나라에 보태지게

(천진에서)

이 시는 단재의 목은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다. 1907년(28살)에 간행한 <이태리 건국 삼걸전> 서론에서 단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애생이 말하기를 어찌해야 곧 애국자요 그 입으로만 애국애국하면 곧 애국자인가, 그 붓으로만 애국애국하면 곧 애국자인가, 대저 애국자는 반드시 그 뼈·그 피·그 살갗·그 얼굴·그 털·그 머리카락이 오로지 애국심으로 짜여진 몸인고로 누워 있을 때 마음먹기도 나라야며 앉았을 때 생각도 나라야며 그 노래부르기도 나라야며 그 시름조리기도 나라야며 그 웃기도 나라야며 그 소리내어 울기도 나라야라.²⁹⁾

단재의 이 생각과 시를 곧바로 이으면 ‘너’는 애국자가 된다. 이십대의

29) 《개전집》 중, 183쪽. 배달말로 바꾸어 적었다.

단재는 이천만 온 겨레가 애국자가 되기를 꿈꾸었지만³⁰⁾ 망명생활 중 이 시를 썼을 무렵에는 이십대의 거창한 꿈을 실천 가능하도록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 각 도막의 ‘님 나라’라는 배달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단재의 글로는 소설 <꿈하늘>(1916년, 37살)³¹⁾이 있다. 이 소설 전체에서 ‘님 나라’는 ‘조국(祖國)’을 배달말로 쓴 것으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조상의 정신과 더불어 사는 이승의 신국(神國) 또는 천국’이라는 단재의 뜻매김을 추려낼 수 있다. 그리고 미완성작인 이 소설의 뒷 부분에, 혼자만의 정성으로는 공을 이루기 어려우니 화랑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암시가 있다.³²⁾ 이러한 사실로 이 시가 1916년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너’는 화랑정신을 이으려는 젊은이로 추정한다. ‘너’와 마지막 도막의 둘째 줄 ‘되어라’는 나든이가 젊은이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이 작품은 단재가 십년동안 익힌 생각을 자연스럽게 시로 표현한 것인만큼 그의 시조들과 더불어 <천회당시화>에서 주장했던 개량된 국시를 실현한 작품이라 일컬을 만하다.³³⁾ 씩씩하면서도 맑은 배달말로 넉넉하고도 굳센 뜻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2음보 고른 가락의 자유시로 노래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씩씩한 젊은이를 겨냥했으면서도 나든이들만 노래부르게끔 되어 있다. 이 시의 제목을 ‘나의 것’으로 하고 본문의 ‘너’를 ‘나’로 고쳤더라면 나든이와 더불어 젊은이들도 노래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애석하다.

(3) 장단점

단재가 그의 시론에서 국시와 한시를 가르고 한시에 낮은 값을 매겼지만 그가 남긴 시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한시이다. 한학을 하여 어릴 적부터 한시를 지었고³⁴⁾ 그가 사귀 사람들도 주로 한학을 한 선비들이었으며 그리고

30)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1908), 《개전집》 하, 72쪽

31) 《개전집》 하, 174-224쪽

32) 위 책, 221-224쪽. 이 시가 <꿈하늘>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 갈 작품으로 마련된 것은 아닌지.

33) 이동순(1981). 주1)의 책, 205쪽.

34) 신영우(1931). 조선의 역사대가 단재 옥중회견기, 《개전집》 하, 446-447쪽.

김영호(1971). 주19)의 책, 63쪽

삼십대에 들면서부터 망명생활을 한 곳이 중국이었다는 삶의 태두리가 한시를 짓게 한 말미가 된다. 단재 한시의 장점은 지난 날 한시를 본뜨지 않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표현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망명객의 고향 그리움, 어려운 삶에 대한 한탄, 동지에 대한 애정, 유교에 대한 미움, 광복에 대한 다짐 등은 그의 삶 그대로인 것이다. 단재 한시의 단점은 배달겨레가 한시를 지을 때 누구나가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굳이 단재 한시만의 단점이랄 수는 없다. 중국인들이 정한 한시의 틀을 지니려면 구수(句數), 어수, 평측, 압운, 대구 등의 규칙을 따라야 하기에 배달말 가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말 가락도 아닌 트기 가락을 남게 된다. 게다가 표현에서 용사(用事)를 갖추려면 중국의 역사와 고사 그리고 중국 시인들의 한시구를 섞어야 하기에 우리 겨레 정신과 중국 민족성이 뒤범벅이 되는 비빔밥 내용을 지니게 된다. 단재의 한시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보기로 든 한시만 대충 살펴 보아도 ‘오자서’, ‘화씨지벽(和氏之璧)’, ‘천과회혁일’, ‘강동노회’, ‘지음(知音)’ 등이 그러하다. 한시를 짓거나 즐기다 보면 중국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 가까운 마음이 들게 되면 마침내 우리나라와 우리 겨레보다 중국을 더 높이고 본받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역사학자 단재의 한시를 대하면서 이 열 일곱 수의 한시가 배달말로 되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단재는 안고른 가락보다 고른 가락을 살리는 데에 능하고 한시 쪽에 담은 감정이 국시 쪽보다 여럿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시의 장점은 단재의 삶이 그대로 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단재 시조 모두와 두 수의 자유시는 그의 역사의식을 바닥에 깔고 오랜 망명생활 체험에서 우러나온 느낌과 생각을 담고 있다. 나라 잃은 슬픔, 절에서 었혀 사는 서러움, 중국 불교계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들 감정을 이겨 나가는 기백, 광복에 대한 다짐과 열정들이 단재시에 담겨있다. 단재는 요즈음 전문 시인들과는 달리 시를 만들지 않았기에 자신의 삶이 저절로 시에 녹아 들었다. 그래서 그의 시는 꾸민 느낌이 들지 않는다. 쉬운 배달말과 익숙한 가락과 또렷한 말투는 기교를 부리지 않기에 읽기가 쉽다. 이런 까닭으로 그의 시조를 처음 대하면 그저 담담하기도 하고 그의 자유시를 처음 대하면 단순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재의 사람됨을 알아갈수록 단재시의 속뜻은 더 넓고 깊은 울림을 일으킨다. 삶과 시가 일치하는 이런 경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재시 대부분은 그의 나이 사십대에 쓰여진 것이다. 나라가 쓰러져 가는 시기에 태어나 갖은 체험을 하면서도 나라사랑의 뜻을 굳게 세워 지키는 동안에 일어났던 온갖 느낌과 생각들이 응골차게 여물었기에 만들지 않아도 시가 되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국시의 단점은 둘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유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돌려 말하기가 약하다. 앞에서 검토한 ‘한나라 생각’과 ‘너의 것’의 작은 잘못은 단재의 끈은 성품과 계몽의식에서 빚어진 말부림으로 일어난 것이다. ‘너의 것’이 교훈 또는 잠언처럼 여겨지는 까닭도 시보다는 교육에서 자주 쓰이는 바로말하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바로말하기가 뜻을 곧바로 전하기는 하나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가 힘든 반면에 돌려말하기는 뜻전달이 느리기는 하나 감정을 먼저 전드려 분위기를 만들고 틈을 들여 뜻을 전하기에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돌려말하기가 시 말부림의 기본이 되기에 이 말부림이 약하다는 것은 단재시의 단점이 된다. 둘째로, 국시에 담고 있는 감정의 폭이 한시에 전주어 좁다. 평생을 나라사랑으로 일관한 단재의 시가 오로지 나라에 걸리는 감정만 담고 있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시에서 보여주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국시가 없다. 이는 단재가 한시는 나든이들을, 국시는 애국자로 기르려는 젊은이들을 독자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론에서 주장한 바처럼 문약한 나라를 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썩썩한 기상을 키우는 데에 그리움은 어울리지 않는 감정으로 여겼던 것이다. 계몽의식으로 말미암아 단재시의 폭이 좁아진 것은 그의 시론이 지닌 흠을 그대로 이은 흠이 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단재시론과 시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단재시론은 오늘날의 국문학자들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는 뜻매김과 효용과 개량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단재시화가 발표된 시기(1909년)를 생각하면 단재시론은 높은

값매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단재시화를 임형택(1984)³⁵⁾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국시 운동과 짝을 같이 하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시계 혁명’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으며, 조동일(1986)³⁶⁾에서는 ‘국문문학으로의 전환논리로서 문학론의 전환을 가능하는 데에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값을 매기고 있다. 여하튼 단재시론은 자유시 창작에 대한 논의를 최남선에서, 국문학의 뜻매김에 대한 논의를 이광수에서 해왔던 우리 시사와 비평사 그리고 국문학사를 다시 쓰게끔 하는 값을 지니고 있다.

단재시에 대해서는 시대를 고려한 값매김과 시대를 뛰어넘는 값매김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 ‘한나라 생각’과 ‘너의 것’은 1910년대의 작품으로 단재가 피했던 개량된 국시이다. 이들을 당대의 신체시와 견주면 시로서의 성취도가 더 나은 데다가 겨레시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을 소월과 만해 그리고 운동주의 작품과 견주면 그 성취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돌려말하기가 약하기 때문이다. 단재의 시조 ‘현량사 불상을 보고’는 단순한 울림만 남기에 그의 다른 시조들에 견주어 그 성취도가 떨어진다. 나머지 네 수는 그 앞 뒤 시대의 뛰어난 어느 시조에 견주더라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단재의 시조 네 수는 일급시로, 시조 한 수와 자유시 두 수는 한 급 낮은 작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다. 단재의 한시에 대해서는 값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줄인다.

35) 주28)과 같음.

36)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6-202쪽.

37) 이 잣대는 다음 글에서 잡았다.

20세기 전반기 국토회복기에 있었던 배달말 시로서는 한용운·김정식이 굳센 터전을 만들어 주었고, 한시로서는 김창숙의 일제감방 옥중시가 거룩함의 꼭지에 이르렀습니다. 김창숙·한용운·김정식을 이어받을 시인으로서는 이활, 운동주가 있습니다. 이활의 시는 밖으로 내어뻐는 연설조가 되어서 시가 지니는 본바탕에서 어긋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활은 외지의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시 작품으로서 한 급 낮은 곳으로 밀려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밀려나야만 했던 점이 이활의 사람됨에서 보면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그 애석함이란 이활의 사람됨만큼 그의 시가 올라서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려중동(1983). 한국문학력사. 형설출판사. 379쪽.